"서씨 1억 요구받고 실의 빠졌다"

시간강사 동료 K씨 증언 … 지난해 서울서 학회참석 때 제의 받아

"경찰, 대학 관계자·브로커 여부 밝혀내야"

교수채용 과정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시간강사 서모(45)씨가 지난해 경기도의 모 대학 관계자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씨의 동료인 K씨는 지난달 31일 "서씨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학회 참석 당시 '1억원을 주면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서씨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해왔다.

K씨는 "서씨가 지난해 5월 모 학회 주최의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뒤 '경기도 모 대학의 교수 임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는데,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날 세미나가 끝난 뒤 K씨에게 "밖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세미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서씨가 '누군가를 만난다'며 나간지 1시간 후에 돌아와 '도와주시고 싶다면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결초보은(結草報恩)하겠습니다'라며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씨는 그러나 "세미나 이후로 서씨가 웃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며 "상대의 제의를 거절하긴 했지만, 교수채용을 대가로 큰 돈을 요구받은 데 대해 실망감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K씨는 또 "경찰 수사를 통해 서씨가 세미나 당시 만났던 사람이 해당 대학교의 관계자인지, 이른바 '브로커' 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 모 학회에 따르면 서씨와 K씨는 지난해 5월 초께 강독(講讀)을 위해 이 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실제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지난달 25일 교수채용 과정에서의 '뒷돈' 요구와 '논문대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북한산 바지락 국내산 속여 일본 수출

수억 부당이득 4명 적발

북한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일본에 수출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산물 판매업자와 수출업체 대표 등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31일 여수 모 수산물 판매업자 배모(45)씨와 부산지역 수출업체 대표 박모(47)씨, 직원 황모(45)씨 등 4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여수시 자신의 작업장에서 북한산 바지락을 국내산 그물망에 옮겨 담아 박씨에게 팔아 넘기는 등 최근까지 43회에 걸쳐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산 바지락 150t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배씨의 도움을 받아 북한산 바지락이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바지락 가격은 20㎏당 4만원선이며, 국내산은 20㎏당 5만~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박씨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매업자가 직접 작성한데다, 수협 직원과 기초자치단체 담당 직원들이 구매량·원산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알고 관계기관으로부터 70여 건이 넘는 허위원산지증명서를 대량으로 발급받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휴대전화로 여성 촬영 '덜미'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31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박모(26)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 지하차도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3명의 다리 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서성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호기자 kimho@

벼랑끝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 ㊥ '상아탑의 노예'

교수 자녀 통학 시키고 이사갈 땐 집 청소까지

"교단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각오없이는 대학이나 교수들에게 어떠한 불평이나 항의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선언은 곧바로 매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취재진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시간강사들은 모두 신분 보장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은 정규직 교수 채용과정에서의 부조리나 교수·시간강사와의 불합리한 관계를 증언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간접적인 내용을 밝혔다.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염려한 탓이다.

수도권은 물론 일부지만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도 기부금이나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학교 기자재 기부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 A씨는 2년 전 전남 모 대학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1억원의 기부 요구를 받았다.

또 다른 강사는 채용 후 캠퍼스에 심을 정원수 기증을 요구받았으며, 연구실이나 강의실 집기 기부를 제안한 학교도 있었다.

최근 1~2년 사이에는 채용과정에서의 요구보다는 채용 후 금품이나 학교 기자재 기부를 요구하는 곳도 더러 있는 실정이다.

기부 정도도 강사가 정치권 등 인맥이 있으면 수백만원 이하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오직 실력만을 가지고 응시했을 때에는 거액이 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사들은 강의 개설과 교원 선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수들에게 스승이나 선배에게 지키는 도를 '절대복종'하는 것으로 증언했다.

B씨는 지난해 수개월 동안 교수 자녀를 통학시켰다.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논문 보조는 기본이다. 단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이 오직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정해져 있다. 심지어 교수가 이사갈 때면 부부가 함께 가 청소했으며, 어려운 살림에도 명절 때면 선물을 빠뜨리지 않았다.

올해로 6년째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C씨. 현재 2곳의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조차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스승의 날에도 학생들에게 카네이션을 받지 못했으며, 학점이 낮다며 항의하는 학생들도 많아 회의를 느끼고 있다.

강의 경력이 20년이 넘은 D씨는 학교 안에 머무를 곳이 없다. 연구실이 없기 때문에 차 안에서 대기할 때가 많고, 대학 벤치에서 수업 준비를 하다가 학생들과 마주쳐 체면을 구긴 적인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젠 교수의 길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전임 교원 면접시 반드시 빠지지 않은 질문이 "재산은 있느냐, 뭘 기부할 수 있느냐"였다. 어떤 때는 무료로 몇 년 동안 강의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경로당 무료 건강진료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지난달 31일 연제동 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진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버지 앞에서 이복 형 흉기 살해

여수경찰, 20대 수배

동생이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복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김모(25)씨는 전날 새벽 0시10분께 여수시 선원동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이복형(33)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이복형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던 이복형의 식당에서 일을 하던중 "형의 가족들이 이름을 부르며 무시한다"며 식당을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개월 전 개업한 이복형의 식당에서 일을 하던 김씨가 평소 이복형의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달아난 김씨를 쫓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부재자 480명에 우편물 발송

선관위, 신안군의원 후보 고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신안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무소속 양모(55)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우편물을 부재자 48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군의회의원 가선거구는 민주당 2명과 무소속 5명 등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철없는 10대 친구와 아버지 집 절도

쌍나팔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난 김모(18·무직)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 자신의 아버지(53)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 베개 속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3장 등 모두 50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은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던 김군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함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상위권대학 거침없이 합격시킨다
개강▸6월 1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영어 기초이론반
편입영어 문제풀이 확장반
편입수학 미적분학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편입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2-8088, 227-8088